



영암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 단위 협력 체계 강화

축산단체·축협·공공기관·실무관련자 등 23명 참석



영암군은 지난 22일 군청 남산실에서 부군수(TF팀장)를 반장으로 관내 축산단체, 축협, 공공기관, 건축사의 담당팀장·실무관련자 23명이 모여 지역단위 협력체 회의를 가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소극적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추진속도를 견인하는 한편 더 이상 연장은 없으므로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410농가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 하였고, 그 중 99%가 축사를 완료하여 추진율은 매우 높은편으로 전국 159개 지자체 중에서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달 22일 현재 64농가만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완료 260농가가 설계 중으로 완료가 전국 평균보다 4%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설계 진행 중 적법되는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

하여 적법화 완료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군청 관련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농가별 위반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거, 도로 등 국·공유지 사용·매각 협의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완화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건축사에 맡겨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무허가축사로 설계 의뢰된 건축설계는 법정기한을 감안 6월까지 우선하여 건축설계하고 즉시 민원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토록 하였고, 축산단체는 소속단체농가에 관한 내 미완료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매일 1회이상 정기점검회의를 갖고 추진 중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가면서 9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힐링 명소된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 습지정원'



화순군이 수만리 생태숲 공원에 조성한 습지정원이 지역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의 '힐링 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이용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습지정원을 조성했다. 올 2월 착공해 5월 초에 준공한 습지정원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사업비 5억 원)에 선정돼 추진했다.

습지정원에 전통정자 1동, 지형을 활용한 습지 연못 5개소, 목재 데크 관찰로 등을 설치했다.

연못 주변에는 계절별 화초류 3만 본을 심어 수만리 철쭉공원과 함께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

정자 전망대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생태숲 공원에 있던 물웅덩이가 휴양·관광·자연학습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

화적 습지정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새로운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만리 생태숲 공원 인근은 유아들의 자연 교감과 숲체험을 위한 알프스 유아숲 체험원, 월평균 3만여 명이 찾는 오감연결길,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무등산 양떼목장 등 다양한 자원이 있어 산림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군 관계자는 "습지정원 조성으로 수만리 생태숲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해 산림복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화

담양군이 지역의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지원 컨설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지원 컨설팅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담양군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이나 기존사업자 중 개

선이 필요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달 5일까지 신청순 20명을 모집해 6월 11일부터 4일간 창업기초, 소점포 마케팅, 세무실무, 고객서비스 등을 교육하고, 이수자에게는 전문가가 5개월간 컨설팅, 현장관리, 매출점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1년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세의 50%, 전세의 경우는 대출금리 적용금액의 50%를 최대 2년간 매년 3백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담양에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이자의 일정부분을 보전 해주는 사업으로,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 3%까지 최대 3년간, 매년 2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전자우편(da791002@korea.kr), 팩스(061-380-3575)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풀뿌리경제과(061-380-304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읍,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 교육

강진읍 강진읍은 지난 22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익형 7개 사업 116명과 시장형 1개 사업 15명 총 1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년기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준법 읍장의 따뜻한 격려와 행복노래봉사단 공연 및 남도안전학당 이창훈 강사의 '교통 및 생활안전 교육', 김영미 팀장의 '노인일자리사업 올바른 운영'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행복노래봉사단의 '일하는 즐거움, 행복한 노래'라는 주제의 공연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위험한 심근경색 및 당뇨,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노인층이 미

세반지로 인해 생기는 몸의 증상 및 대응요령, 하절기 건강관리 교육, 기초 교통법규와 보행 수칙,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드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가운데 노년기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강진읍은 깨끗한 강진을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로 강진을 중심가 시가지 쓰레기 수거 등 거리환경 정화활동과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노인에게 노인친구를 만들어주는 노노케어, 시장형 일자리인 비누 제조사업 등 9개 사업 184명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80명 참여자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활동을 위한 이동거리 해결을 위하여 16개 구역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강진읍은 매년 4회에 걸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직무교육 외에도 건강관리 및 관계 증진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실시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준법 강진읍장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의 수고에 늘 감사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여수시, 스마트도시 향해 '첫 발'...용역 착수

2020년~2024년 중장기 발전 로드맵·추진계획 등 수립



여수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도시를 향해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고재영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여수시 지역정보화협의회 위원, 용역사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문엔지니어링(주)와 (주)큐로엔지니어가 맡았고, 과업 범위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이다. 용역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

월이며 소요예산은 9856만 원이다.

앞으로 용역사는 ▲스마트도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연차별, 단계별 추진계획과 전략과제 도출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분석 등을 수행한다.

용역 결과물은 인터뷰, 설문조사, 자료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쳐 연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여수시에 특화된 스마트도시 추진전략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용역 결과는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정부 공모사업 응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적용해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